

‘임종룡號’ 초대 우리은행장에 ‘영업 통’ 김종득 유력

우리금융 24일 정기주총 후
경영 승계 프로그램 가동

유력 후보였던 박화재 사장
‘원P&S 대표’로 내정돼
현장경험 갖춘 김종득 부상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우리
은행장 자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한 후보였던 박화재 사장이 원P&
S 대표로 내정되면서 김종득 우리종합
금융 대표가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
는 24일 정기주주총회 이후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우리은행장 선임 절
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은행장 자리에
는 현장경험을 갖춘 영업통이 예상되고



김종득 전 우리금융 대표.

있다.

당초 경합 후보로 거론되던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지난 14일 은행 계열사인 원P&S 대표
로 내정되면서 김종득 사장이 단독 후
보군으로 떠올랐다.

1961년생인 박화재 사장은 광주상고
졸업 후 우리은행에서 업무지원그룹 상
무, 여신지원그룹 상무, 여신지원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영업
통’이다. 최근 임 내정자가 영업 중심으
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박 사장도
은행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박 사
장이 원P&S 대표로 내정되면서 김종
득 전 우리금융 대표가 유력해졌다.

1963년생인 김종득 전 대표는 단국
대를 졸업하고 입행한 후 본점영업본부
장, 검사실 본부장, 자금시장그룹 집행
부행장보를 지냈다. 김 전 대표는 상업
은행 출신으로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때
3분기 연속 ‘영업 1등’을 차지할 만큼

수완을 발휘했다. 2020년 3월 우리종합
금융의 지휘봉을 잡고 기업금융(IB) 중
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면
서 수익을 70%나 끌어 올렸다.

우리금융이 자산관리(WM) 역량을
갖춘 증권사를 원하는 만큼 향후 우리
종합금융과 합병 할 가능성이 있어 김
전 대표의 역량이 임 내정자에게 필요
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김정기 전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조병
규 전 우리은행 기업그룹장 등도 후보
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차기 행장 선임 과정에서 주요 포인
트가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등 출신 인
물 가운데 누가 되느냐다. 김 전 대표가
상업은행 출신인 만큼 한일은행 출신
인물이 부상할 수도 있다.

현재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상업은행 출신들이다.

우리은행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합병
으로 출범했다. 사의를 밝히고 회사를
떠나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한일은행 출신이다.

우리은행장은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이 번갈아가면서 행장직을 맡아왔
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는 임 내정
자 입장에서 파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업은행 출신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종룡 차기 회장
이 은행 등 자회사들의 영업을 강조한
만큼 현장 경험과 영업성과가 뚜렷했던
인물을 선호할 것”이라며 “영업능력과
기획력 등을 감안하면 김종득 전 사장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ABL생명,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 ‘톱3’

6년 연속 운용수익률 4% 이상
균형 초점, 빠른 의사결정 비결

ABL생명의 지난 6년간 자산운용수
익률이 업계 평균 이상을 기록한 것으
로 나타났다.

ABL생명은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
4.19%를 기록하면서 6년 연속 생명보
험 업계 톱3를 예상한다고 15일 밝혔
다.

자산운용수익률은 보험사의 자산운
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6년간
4% 이상을 기록하며 업계 평균인
3.64%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선 금리, 환율, 물가, 국제정세 등
변수에 대응해 운용수익률을 올리고 있
다. ▲2017년 4.2% ▲2018년 4.2% ▲
2019년 4.1% ▲2020년 3.9% ▲2021년
4.1% ▲2022년 4.19%의 수익률을 기
록했다.

균형에 초점을 둔 운용 전략과 빠른
의사 결정이 업계 상위권 수익률을 거



ABL생명 본사.

/ABL생명

둔 비결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단기 차
익 실현보다 장기 채권 운용을 추구해
2019년부터 안정적인 이차 마진을 거뒀
다.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은 대체투자
비중을 2016년 6.8%에서 2022년
21.4%까지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2021

년 3분기 보유 상장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방어했다. 관행적인 재간접 펀
드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환경 흐름에
맞춘 운용 전략 또한 성과의 비결이다.

해외 대체 투자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단순 복미 위주 투자가 아닌
신용등급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
ECD) 국가 중 수익률이 우수한 국가와
투자처를 발굴했다.

또 해외 딜소싱(Deal sourcing) 네
트워드를 활용해 역량이 우수한 해외
운용사를 찾았다. ABL생명은 향후 안
정적인 이차수익을 위한 대출채권 중심
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
이다.

권달훈 ABL생명 자산운용실장은
“5년 연속 업계 수익률 3위 이내에 들었
다는 것은 어떤 투자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운용전략을 통해 좋
은 성과를 꾸준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

인카금융, 작년 당기순이익 27% 증가

매출액 28%, 영업이익 30% 늘어
불완전 판매율 등 영업지표 개선

인카금융서비스가 2022년 경영실적
을 공개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해 당기순이
익이 전년 대비 26.8% 증가한 207억원
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4014억원)과 영업이익
(274억원) 또한 각각 27.6%, 29.6% 늘
었다.

지난해 2월 상장 이후 설계사의 지속
적인 유입으로 영업력을 확대했다는 평
가다.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또한 계
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율 등의 영업효
율 지표 또한 개선됐다.

지난 2월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
탈, 국민은행 등과 600억원 규모의 대여
금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마련했다. 이
는 지난해 시작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현장 영업 강화를 위해 투자할 계획
이다.

공시를 통해 보통주 1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결산배당도 결정했다. 이는
상장 후 첫 결산배당으로 시가배당률은
4.2%, 배당금 총액은 약 30억원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최
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설립된 인카금융서비
스는 국내 대표 기업형보험대리점(GA)으
로 업계최초 코넥스 상장에 이어 코스닥
에 상장됐다. ▲모바일 가격 시스템 ▲
실시간 자동차 사고 자동정보시스템 ▲
긴급 구난 서비스 등을 개발했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 플
랜에 따라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라
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선보여 매출을 늘리
고, 주가 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

KB국민은행

특성화고 취업생 대상
‘굿잡 취업학교’ 실시

KB국민은행이 ‘KB굿잡 취업학교
15기’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KB굿잡 취업학교’는 전담 컨설턴트
배정을 통해 진로 설정부터 일자리 매
칭까지 특성화고 취업준비생에 특화된
원스톱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 지금까지 총 1500여명의 특성화고
취업 준비생이 참여했다.

이번 KB굿잡 취업학교 15기에 참여
하는 120여명의 참가자는 이달 14일부
터 1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취업캠프를
통해 취업준비 가이드, 의사소통 능력
관리,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 교육
을 받는다. 취업 캠프 종료 후에도 전담
컨설턴트 배정을 통한 6개월간의 맞춤
형 컨설팅과 정기적인 진로상담 등 다
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유리 기자

“디지털 뱅크런, 은행 파산 이어질수도”

>> 1면 ‘SVB 사태에 화들짝...’서 계속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캐
나다는 10만 캐나다달러(약 9600만원)
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 예금보
험공사는 오는 8월 연구용역을 통해 예
금보험한도와 예금보험료의 적정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 뱅크런 대응책 마련 해야”
일각에서는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대
응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바일뱅킹을 포
함한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는 2억
704만명으로 지난 2019년 1억6391만명
으로 26%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이용
실적 중 모바일 뱅킹이 차지하는 이용
건수 비중은 85.4%로 대부분을 차지한
다. 짧은 시간에 스마트폰에서 은행앱
에 접속해 계좌에 있는 자금을 다른 금

용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금거래는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 등 다른 거래에서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체결 금액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모바일 거래
시스템(MTS·증권사 앱)을 통한 거래
비율은 2015년 28.9%였는데,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60.7%로 높아졌다. 좋
은소식이나 나쁜소식을 접할 경우 빠르
게 자금거래가 발생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
기 때문에 하루이틀 사이에 은행의 파
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기 뱅크런
이 일어날 당시 금융당국에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정
교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銀, 청년세대 최고 5.85% 금리 제공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 출시

신한은행이 청년 세대들의 목돈마련
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 청년저축왕 적
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은 만 18세 이
상 만 39세 이하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월 1000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이 적금은 기본금리에 최고 연 1.3%
우대금리를 적용해 ▲12개월 기준 최고
연 5.65% ▲24개월 기준 최고 연 5.
75% ▲36개월 기준 최고 연 5.85% 금
리를 제공한다.

우대 금리는 ▲급여월급 월급봉투 6
개월 이상 받는 경우 연 0.5% ▲적립 원
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3% ▲입
출금 통장 첫 신규 고객인 경우 연 0.3%
▲초대코드 제공 및 입력 고객에게 연
0.2%를 제공한다.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은 20만화 한도



로 12월 31일까지 솔(SOL)과 영업점에
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은 본인의
결혼 및 주택마련자금을 위해 중도 해
지해야 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중
도해지금리가 아닌 기본금리를 적용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많은 청년고객
들이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을 통해 목
돈을 마련하고, 친구들과 함께 저축하
는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
로도 고객에게 이로움을 드리는 다양하
고 참신한 상품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